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2호 [루게 제2480호]

주제 107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음력 2월 1일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김정일령도자는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걸출한 정치가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한평생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나라의 강성변역을 담보하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시고 세계사회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을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민주공공산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순결성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불멸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의 함길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화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하시였다.

체스코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세계 혁명적인류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드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던 시련의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안아왔다.

로씨야 21세기관련학단 단장은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명과 조선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바쳐진 고귀한 한평생이라고 하면서 그이는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향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서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불철주야의 령도로 조선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세계적인 강군으로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 특집, 글 게재

여러 나라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이자문헌을 모시고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 《김정일화와 세계》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1942년 2월 16일 김정일각하께서 조선혁명의 선상으로 불리우는 조선혁명의 영웅을 소개하고 하면서 위인의 탄생과 더불어 전해지는 일화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문은 백두산밀영고향집사전을 함께 편집하였다.

신문 《인터내셔널 미디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을 이끄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였다.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쫓아가는 애국위업으로 간주하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에 쥘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또한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을 지니고계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령도력으로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빛내이시였다.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캄보디아신문 《노코트 데일리》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 풍부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찬양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업적 중의 업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위업장은 조선의 부강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쉬지 않았고 하면서 김정일각하가 행성을 뚫고 물들이며 만사장의 매혹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단숨히 꽃의 아름다움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은 광범한 국제사회에서 세계 제1명인으로 칭송받으시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대로로,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대대로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전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입을 모아 《붕괴》된다고 떠들어대던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박속에서도 정치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라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평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주체—네 팔》은 절세위인의 고결한 인민적품목을 격찬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마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만만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조선의 현실은 김정일동지의 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나라의 정치사상지지를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악의 역경을 이겨내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게 되었다.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팀없이 계승되고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선생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시는데 대해 소개하고 김정일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김정일각하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망마신문 《더 뉴 에이취》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어 진보적인류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전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인류의 대성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잠비아신문 《브랜드 라인 뉴스》, 민주공공신문 《라 브로소 베리메》, 벨라루시신문 《브베로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찬양하는 글들을 편집하였다.

앙골라신문 《우 빠시》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으신 절세위인의 업적에 대하여, 콩고신문 《리 빠트리오트》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시고 만사장을

최악의 역경을 이겨내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게 되었다.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팀없이 계승되고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습건의 과학연구성과 이룩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첨단과학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해결해나가고있다.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두마차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대학의 연구자들은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습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급속, 전력, 기계공업 등 여러 부문에 나간 대학의 연구자들이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았다.

김책철련합기업소에 과학된 연구집단은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에 쓰이는 동력각합생산기술을 새롭게 확립하고 산소열법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 조종제거를 완성하는 등 10여건의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열공학부의 연구자들은 북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에 나가 새

해 첫날부터 철야전투를 벌여 20만kw발전설비착용용 심방식 산소분리기공정을 완성함으로써 산소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전력계통연구소의 연구사들도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전력관리기술장치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평양무기도전차공장건설현대화공사에 망라된 연구집단은 튼튼전기계와 전동기생산에 필요한 차틀구멍가공중심반, 건인—속도시험대, 자체열벽성형기, 진공가압합성설비 등 9종의 생산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냄으로써 지난 1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재료공학부에서는 새형의 80hp 트랙도르와 5t급화물자동차생산에서 합금강대신 구상흑연주철을 리용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평안관광지구에 대한 3차원지도를 작성하고 이미 탐사한 자료들에 대한 자료기지와, 수자화를 완성한 자원탐색공학부에서는 탐사자료처리 및 해석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연동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

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었다.

평양직공위원회공공장에 나간 연구집단은 치약배합공정 PLC 조종장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수감부들의 동력회로결선을 완성하였으며 부차시험에서 성공하였다.

광업공학부의 연구자들은 남새재배에 리용되는 물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새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활성화된 재배용수를 공급적으로 생산하는 연구도 심화시키는 과정에 각이한 능력의 활성수처리장치제작기술도 내 놓았다.

청년두단종어사업소 미꾸라지종어장현대화공사에 참가한 정보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부, 나노물리공학과 연구자, 전자공학부의 연구사들도 통합생산체계를 완비하고 자리걸수감부의 특성에 맞게 조종프로그램을 개발 완성하여 자동먹이공급 및 수질관리로봇의 시운전을 보장하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를 추동해나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자들의 창조성과 애국심은 더 많은 성과들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2월 23일 원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서기장 토마스 피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가 2월 21일 마리보시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튜르매르 줄라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경애하는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마자르준비위원회가 2월 21일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튜르매르 줄라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경애하는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튜르매르 줄라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준비위원회가 7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파티당,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극면이 펼쳐지고있다.

은 겨레가 이것을 기뻐하고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제도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있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대결과 군사적강장이 첨예하던 조선반도에 완화와 관계개선의 훈풍이 불고있는것은 2018년의 극적인 사변이며 이 해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북과 남은 오늘의 귀중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북남관계개선의 풍성한 열매를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은 은 겨레의 갈망이다.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해야 얻을것은 긴장격화과 전쟁위험의 고조이고 민족분열의 지속

이다. 우리 겨레는 이것을 지나서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의 당국은 민족앞에 걸머지고있는 크나큰 사명감을 자각하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더 높여야 한다.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서 지향시키고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호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마찬가지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그 주인공 북과 남의 당국이 고역이다.

우리 겨레는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통하여 북과 남이 만나면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상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북과 남은 맞잡은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내달려야 한다. 지금 침략적인 외세는 조선반도의 화해호류에 불안을 느끼면

서 음모양모로 방해책동을 일삼고있다. 또한 남조선의 보수적대결기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대결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악설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그러나 화해와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조선민족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수는 없다.

이런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동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박관을 가지고 모처럼 마련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적극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인민들의 호평받는 비단이불을 많이 생산한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에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0일 남조선에서 민족작가련합이 결성되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결성대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로동자시인 김해화를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작가련합 결성

강행하며 꺼져가는 반동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발악하고있다고 단죄하고 싸워나갈것이라고

민중해방, 민족통일을 향하여 민족작가련합의 기발을 높이 들고

밝혔다. 선언문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과 남이 함께 치른 민족공동의 대사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국제적인 체육무대로서만이 아니라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향해 크게 한걸음 내딛은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세상사람들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조선민족의 위상을 과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한 민족의 대성공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첨예한 조선반도의 정세로 하여 올림픽경기대회가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이번 겨울철올림픽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막을 수 없는 통일지향과 커다란 힘을 보게 되었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가를 감동깊은 현실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새해 정초에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히었

다. 공화국의 이번 겨울철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북남사이의 실무적인 문제들이 토의될 때 내외의 해외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이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평양올림픽》, 《북의 체제선전장》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고 지어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의 방문을 막아 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날뛰었다. 한편 외부의 적대세력들은 앞서는 환호한다고 거짓웃음을 짓고 돌아앉아서는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까봐 두려워 하면서 인위적으로 조선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는 놀음도 벌여 놓았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책동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서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고 자녀빙상호케이 종목에서 단일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여 우리 민족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주었

다.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의 가수들이 손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 함께 격정의 환호를 터치였으며 북남태권도인들이 합동시범출연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북과 남의 힘이 합쳐지면 얼마나 큰 힘으로 되겠는가를 뜨겁게 절감하게 되었다.

하기에 한 해외동포단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었다.

《남과 북이 손을 잡으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몇백명이 마주잡은 손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만약 수백, 수천만동포들이 만나 서로 얼싸안은 통일의 날을 맞으면 어떨것인가. 그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것이 틀림없다... 평창올림픽은 통일된 조국에서 분출될 어마어마한 힘을 미리 경험하게 해준 최고의 통일올림픽이었다. 우리는 남북이 함께 하여 이른 통일올림픽에서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통일의 불씨를 거대한 통일의 해물로 살려내어 환희의 그날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이번 겨울철올림픽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북남관

계개선의 불씨를 살린 의의있는 올림픽으로 되게 된다는 통일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을 응답한 일로 여기면서 화해와 단합의 진정어린 손길을 내밀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준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깃들여있다. 특히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친서를 남조선 대통령에게 정중히 전달하고 이번 겨울철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행사에 모두 참가한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북남관계개선의지의 발현으로서 북남관계의 전망을 밝게 해준 또 하나의 의의있는 조치였다.

북과 남에서는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가 전례 없이 높아가고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귀중한 경험을 적극 살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지금 북남사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있는 속에 남녘인민들속에서 공화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 더우기 통일하여 함께 모여살아야 할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를 도모해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고 통일로 가는데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공화국을 바로 리해하는 데서 조국통일로선에 대해 잘 아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화국은 북남이 대결하고 충돌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루하는것을 지향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로선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이다.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워온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로선이다.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진민족의 튼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화합인 남북련석회의가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공화국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 하나의 조선로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로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를 밝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

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이 안아온것이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대사로 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 공화국은 고위급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사절단을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드높여왔다.

특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남조선대통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올림픽에 북측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언사까지 북조선측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력사의 모진 광풍도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어세울수 없으며 분렬은 통일을 이길수 없다.

통일로선이 분렬로선을 이기고 통일세력이 분렬세력을 압도하며 겨레가 통일의 광장으로 가는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고 조선반도대세의 흐름이다.

하나의 조선로선

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년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화국은 1970년대에 격변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 나라의

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이 안아온것이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대사로 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 공화국은 고위급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사절단을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드높여왔다.

특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남조선대통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올림픽에 북측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언사까지 북조선측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력사의 모진 광풍도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어세울수 없으며 분렬은 통일을 이길수 없다.

통일로선이 분렬로선을 이기고 통일세력이 분렬세력을 압도하며 겨레가 통일의 광장으로 가는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고 조선반도대세의 흐름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이 밤도 같은 등골전만...

동근달 높이 걸린 나무가지사이로
휘영청 달빛이 으스스 처량하다
정월대보름명절밤이지만
여기선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마음에선 철철철 피가 흐른다
허리에 청청 감긴 철조망가시는
8천만 백의겨레 가슴을 찌르고
출렁출렁 넘쳐 흘러 강이 된 그
피는
림진강 물이 되어 원한실고 흐르네

리 정 화 (재중동포)

등골전만
북남형제 언제면 등근 밤상 마주
앉아
서로 굳게 손잡고 측배를 높이 들며
한현재 한식술로 기쁘게 살이불가
피네

이 밤도 저 하늘에 등근 보름달
통일년된 통일열린 가슴에 불지
피네

민족작가련합 힘차게 뚝대를 올려라

박 금 란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자고 열렬히 호소한 박금란시인의 시가 실렸다.

시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하늘까지 닿은 민족의 산 백두산
고난의 눈물, 감격의 눈물 모여
되고 푸른 천지를 이루자
백두의 총알이 일제의 심장에 박히고
흰옷의 해방총검이
삼천리에 훑혔어라
꽃향기 넘치는
맑은 해방의 하늘에 날벼락
38° 선을 그은 미제의 침략에
조국산천이 갈가리 찢기고
그 상처 투흔이 되어
식민지는 싫다 분단은 싫다
목숨바쳐 싸워오길 73년
춤추며 세월을 짜며
투쟁으로 솟구친 불길은
이제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통일이 곁에 바짝 왔어라
꿈결에도 통일을 위해 싸워온 해방
전사여
고결한 뜻, 순결한 마음, 투쟁의 불꽃
고이 이어받아

외세를 물아내는 전선에서
한몸되어 싸워
통일을 이루자
온몸으로 쓰는 통일의 붓끝으로
해방세상 열어젖혀라
엄마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의 새 생명처럼
통일조국의 품 안기길 그리워하며
...
떠오르는 해 심장에 안고
불을 토해내는 글과 예술로
늘 민족과 함께하는 열정에 넘쳐라
...
남북이 얼싸안고 하나되어
마음껏 살아가리라
...
이 땅의 만년평화, 통일을 이루어
후대에 해살가득 물려주자
비로소 들꽃 만발한 꽃길은 걸어라
겨레의 고운 향기
풀과 나무, 돌과 흙, 시내와 강과 바다
삼천리에 그옥하여라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아 리 랑》

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와 같은 조선민족이 부르는 노래이다.

북에서도 울리고 남에서도 울리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를 들으면 몽글 젖어드는 조선민족의 감정, 그것이 북에 산다고, 남에 산다고, 해외에 산다고 어찌 다를수 있느냐.

그 느끼는 감정의 공통성, 그것이 바로 단일민족의 소중한 감정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 분렬의 장벽으로써도 가를수 없고 끊을수 없는 하나의 피줄이 뛰는 소리로 이 노래 조선사람이라는 가슴속울림이다.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는 금시 하나가 된다.

민족이 하나가 되려는 강렬한 념원과 지향에 떠받들려 이 노래는 지난 6.15 통일시대에 겨레가 만나는 곳,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장들마다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었다.

그 노래 부르며 북녘의 형제들은 통일열차 타고 서울, 부산으로 내달리며 다도해의 푸른 물에 발도 잠글 환희의 그날을 그리었고 남녘의 형제들은 평양

과 백두산에도 가고 푸른 숲 우거진 송도원의 백사장도 마음껏 거닐어볼 꿈과 리상도 꽃피워왔다.

북남의 겨레가 하늘길, 땅길, 배길로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협력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가던 그 감격적인 시대에 《아리랑》은 북녘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화려한 춤과 노래로 펼쳐지기도 하였다. 민족의 《아리랑》이 통일의 아리랑으로 승화되고 통일된 하나의 조선반도가 춤물결속에 새겨지던 감동의 화폭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겨레이다. 그때 6.15통일시대가 놓아준 통일무지개를 타고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평양에 와서 이 공연을 보았다. 남녘의 한 녀성은 《아리랑》 공연을 보러 왔다가 평양산원에서 귀여운 육둥너를 받아안은 행운도 지니었다.

그러던 이 땅에서 《아리랑》의 선물이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진것이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남쪽지역에 파견된 공화국의 예술단이 판현악의 장중한 울림으로 노래하고 북남이 통일을 앞세우고 공동입장하는 개막식장에서도 힘차게 울려 퍼진 조선민족의 《아리랑》.

은 대륙이 통일로 열리는 조선민족의 힘찬 웨침을 들었다. 온 세계가 하나로 된 힘으로 다시 일떠서고있는 위대한 조선민족의 기개에 박수를 보내었다.

노래 《아리랑》은 이 땅우에서, 겨레의 마음속에서 통일열망을 북돋아주며 앞으로도 계속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절 민

반통일매국노들의 발악적 망동

지금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이 펼쳐지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도로 당황망망 초췌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그에 찬물을 끼얹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대변인이라는 자들조차 저마다 낱박을 내밀고 《북의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제재의 원칙은 절대로 흔들

어서는 안된다》, 《북정권에 꽃길을 깔아주는 순간 우리 안보는 가시밭길을 걷는다. 이는 제반들을 놀라놓고 있다.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에서 밀려나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 천하역적무리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

지금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세계가 보란듯이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적 원칙적인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을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어떻게든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을 몰고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도전

해하면서 화해와 단합, 평화의 훈풍을 대결의 역풍으로 뒤엎어엿으려고 발광하고 있는 것이다.

총계 발전하던 6.15통일시대를 망쳐놓고 정세를 전쟁적전으로 몰아넣은 최악에 대해 석고대죄하기는 고사하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흐름을 막아보려고 악을 써대는 추악한 의욕에서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침을 뱉고있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에 대해 《〈한국당〉은 남북관계개선이 그렇게도 달갑지 않은가. 현 강강화화흐름을 파괴하는 망동을 이젠 그만둬라》, 《올림픽개최의 성공적개최를 도와주겠다고 성의를 보인 북을 아비한 언사와 무례한 란동으로 모독한 죄를 특

독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으며 《〈세월〉호참사의 죄를 묻다》 집회 진행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박근혜탄핵 1년을 맞으며 4.16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의 주최하에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 《세월》호참사에서 《〈세월〉호참사의 죄를 묻다》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천만초보민심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박근혜탄핵결정을 내렸지만 박근혜의 권력형부정부패피판을 탄핵사유로 인용하였을 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내용은 인용하지 않고 보충적인 의견만 거론한대 해 상기시켰다. 아무리 많은 죄행들이 있더라도 박근혜는 그 모든것을 통가하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죄불장만 본 박근혜역도의 죄



행을 쫓벌히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어느 죄목이 살인죄보다 더 큰죄 있는가고 하면서 30년구형이 아니라 즉각 처형해도 모자랄 죄목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가 탄핵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적폐청산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더디고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끝으로 《세월》호참사가족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1년전 초보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킨 그때의 투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적폐청산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행을 쫓벌히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어느 죄목이 살인죄보다 더 큰죄 있는가고 하면서 30년구형이 아니라 즉각 처형해도 모자랄 죄목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가 탄핵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적폐청산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더디고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끝으로 《세월》호참사가족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1년전 초보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킨 그때의 투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적폐청산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산성된 적폐들을 청산할데 대한 요구가 드높은 속에 박근혜가 탄핵된지 1년이 지났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지 1년이 되는 지난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국제진보단체들은 성명과 기자회견, 집회를 통해 《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통단을 방조한 적폐세력은 여전히 남아 국민을 기만하고있다》, 《〈낮은 지배질서, 어긋난 권력을 바로잡는 작업은 탄핵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여 초보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리명박, 박근혜와 결탁된 《자유한국당》을 《반성을 모르는 적반하장시태도》로 일관하는 국정통단세력으로 비판규탄하면서 보수적패청산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남조선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기총사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역도가 두차례의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있는 속에 리명박이 특대형범죄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전두환을 다시금 법정에 내세우고 리명박을 감옥에 처넣을것을 강력하게 요구해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사회에서는 추악한 범죄자들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보수세력에 대한 비난여론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전두환과 리명박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된것은 그들이 저지른 용납 못할 반역적죄악에 따른 응당한 결과이다.

전두환으로 말하면 박정희군사파쇼 《정권》이 비극적종말을 고한 이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회색의 살인마이다.

얼마전에도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동안 62만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190개의 군부대와 당시 관공제자 등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

박근혜의 출당늬움으로 역도년과 최희들과는 관계가 없는듯이 시치미를 떼고 1년전보다 나아진것은 없다고 떠들다못해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할 자격이 없다》, 《집권세력적체를 대청소해야 한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여계진보단체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초보민주주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모독적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악성종양을 제때에 들어 내지 않으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에 위협적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초보민주주의의 전취물이 도둑맞는것은 물론이다.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족반역무리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행기를 계속 쫓긴다면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 땅에 불신과 대결의 한파가 들이닥칠것이며 민족적지욕과 불행의 암흑시대 재현될 수 있기에 남조선에는 보수 세력은 절대적으로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설맛은 독사무리들이 날땀다

기예 합세하여 《대한에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국우보수세력자들은 《태극기집회》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지난해에 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민의를 거역하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전대비문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행위, 국약무도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역도와 보수세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면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 탑승자들이 격렬히 대항 명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민병들에게 진압하는데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고 5월 21일과 27일에는 광주민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직승기에서는 지어 발칸포사격까지 이루어

죄는 지은데로 간다

졌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려고 대기하고있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폭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전두환역도의 살인마적기질과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보수세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러앉힌 리명박 역시 집권기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4대강사업》과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전사작전권변환연기와 미국과의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늬움, MB악법, 민간인불



리명박에 대한 구속령장청구와 반성 요구를 회피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남조선의 정의당이 특대형부정부패혐의를 받고있는 리명박에 대한 구속령장청구와 함께 민심을 기만 우롱하는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 대표는 당상무위원회에서 리명박역도의 구속은 더는 미룰수 없는 국민주적으로요구하고 하면서 최대의 수치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것이다. 리명

박에 대한 조사직후 명장을 청구하고 철저히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리명박에 대한 구속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다가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사과와 반성대신 말바꾸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있다. 《자유한국당》과 그 뿌리가 되는 보수야당들은 특급범죄자

만 팔라서 권력의 자리에 앉힌 《범죄정당》이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치부수단으로 삼아 호의호식 했던 지난 과거죄행에 대해 성근히 반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변변한 꼬리자르기식행태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신발수리공, 리발사, 미용사, 재단사...

공화국에는 30년, 40년 지어는 한생을 편 의복사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봉사자들이 수없이 많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가릴수 없다고 하면서 누가 보지말진, 알아주지말진 목적으로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속을 새겨온 이들의 삶은 아름답게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평생이정원 리발사 김혜옥이었다. 지난 43년간 인민의 복무자라는 자국을 안고 성실히 일해오면서 중요대상건설장소에 달려나가 건설자들에게 봉사한 성의껏 해주고있는 그였다.

43년이라는 짧은 그 나날을 어떻게 변함없이 일할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혜옥은 한생을 리발사로 일해오면서 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받았고 공훈리발사직이 된 아버지는 늘 자기 맡은 직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값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품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곤 하였다

이것이 김혜옥의 꿈을 따라 김혜옥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리발사가 되었다. 언제나 상

냥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봉사해주는 김혜옥을 가리켜 손님들은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사랑담아, 칭찬하 불렀다. 그럴수록 그는 자기의 기능수준을 높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 아글라글 애써왔다.

그 나날 공훈리발사칭호를 수여받은 그였다. 나라에서는 해방전 천덕꾸러기인생이었던 아버지에 대해 안겨준 값높은 칭찬을 그의 딸에게도 안겨준것이었다. 공훈리발사의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날 김혜옥은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리라 굳게 마음다졌다.

이런 소중한 마음을 안고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고있는 봉사자들속에는 보통강구역의 봉사자로서 미용사 주경순도 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때부터 오일까지 미용사에 32년간 일해오고있는 나날의 복무자라는 자국을 양심하였다.

그가 미용사가 된데는 사연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 하반신마비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은 그는 사회주의조직의 품에서 돈 한판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병을 려고 일어서게 되었다. 다시금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해준 고마운 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내세워줄 마음으로 그는 미용사직업을 택하였다.

이렇게 미용사가 된 주경순이었지만 한번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지는 철칙 않았다. 때로는 봉사활동으로 하여 지칠 때도 있었고 주저않고싶을 때도 있었다.

류례없는 시련의 나날이었던 고난의 행군시기 생활상곤난이 클 때마다 그는 어려움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변함없는 의의심을 간직하고 조국을 곳곳이 받들어가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며 끝까지 일터를 지켜왔다.

그후 미용사들을 불러일으켜 자재의 힘으로 일터를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일신시키고 영유, 전염균, 전생로병들을 원혈육의 심정제로 따듯이 돌아보아주면서 그들에 대한 이동봉사를 성의껏 진행하였다. 깨끗한 랑십과 의리로 걸어온 그의 32년간은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온 긍지로운 나날이었다.

어찌 이럴뿐이랴. 지난 수십년간 손님들의 기호에 맞는 옷도안을 많이 창안도입하고 영예진인들의 가정에도 찾아간 정정을 다바쳐 사람들속에서 《우리

재단사》로 불리우고있는 평양시인민위원회 권의경급기능공학교 교원이며 재단사인 박영남과 오랜 세월 조국이 맡겨준 초소에서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걸은 대동강구역의 봉사사업소 리발사 리정순, 오랜 기간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조신옷을 수없이 창안제작하여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원산시편의봉사관리소 재단사 리향옥...

이들이 편의봉사부문에 첫발을 들여놓게 된 사연은 각이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직종에서 인민을 위한 복무의 첫걸음을 맨 그날부터 수십년세월 변심과 욕심을 모르고 한본색로 살아온 이들의 인생행로는 참된 삶이란 어떤것인가를 말없이 가르치고있다.

한생을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꿰뚫고 걸어온 이들의 가슴속정진은 하나 같다.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바쳤는가 하고 돌아보면 한 일이 너무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일터를 뜰수 없고 한생을 다바쳐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훌륭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싶습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과학기술적가치가 큰 새 기술, 새 제품들

제33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 진행 -

얼마전 제33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에는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조성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24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품들로 70여건의 새 기술, 새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단체와 개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축전은 전력, 농업, 정보통신을 비롯하여 9개 분과로 나누어 과학기술발표경연과 과학기술성품시경연,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에서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출품한 새 기술, 새 제품들이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이삭머핀식 복합로봇기는 포전에서 버를 베고 탈곡, 정선, 포장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종합적으로 함으로써 낱알손실을 줄이고 생산능률을 높이며 많은 로력을 절약하는것으로 하여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평가되었다.

무태도전차에 대한 속도성능시험을 진행하여 무태도전차의 걸림특성이 설계요구를 만족시키는가를 검사하는 무

태도전차걸임—속도시험에도 국산화를 실현하고 무태도전차의 견인—속도성능을 제고하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축전에는 인공판 디폴심는 기계(평천일용필수품공장), 고압 및 저압 전류변성기들의 국산화기술(평양자동화기공장), 뛰어난공생산공정확립기술(평양기초식품공장), 천연 및 합성자극제에 의한 구두생산의 다양화기술(만경대구두공

장), 학령전교육의 정보화(평양애육원)를 비롯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고 실효성있는 새 기술, 새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이번 축전에서 단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출품한 새 기술, 새 제품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실력평가에서 정보화를 실현하고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 객관성을 보장하게 해주는 원격종합시험체계(평

양시로일용기술대학 교원 리광철), 제화호름선의 국산화기술(평양신발기계공장 오남혁), 태양빛도로청소차(대동강구역도시설관리소 서명환)들이 그러하였다.

제33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은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북돋아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조국의 밝은 모습을 보았다

우리 제일본조신인예술단은 광명성절을 계기로 조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경공공연도 하고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즐거운 체류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이번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동포들은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억센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큰 힘을 얻곤 한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자국적인 공화국을 암살해보려고 제재와 봉쇄의 고삐를 조이고있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들은 자위적 국방력을 척벽으로 다져놓은 우리 조국의 위력앞에 물거품이 되고 말것이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여 조국의 위력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조국은 배신든하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매진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열골마다 자그마한 근심도 없

이 밝고 밝걸음은 활기를 띠고있다.

더 좋아질 래일에 대한 확신, 최후승리를 마중가는 자신만만한기 없다면 있을수없는 조국의 밝고 랑만적인 모습이다.

세인이 경모하고 칭송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원수님께서 계시어 오늘의 강대한 조선이 있고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존엄높고 강대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애국사업에 심신을 다 바쳐가겠다.

김강산기극단 배우 김 미 순



우리 옥류아동병원으로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된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메일과 같이 많은 편지들이 오고있다.

심장수술을 받은 아이들마다 날마다 튼튼해지기에 온 마을사람들의 마음담아 감사의 편지를 보내다가 간파를 늘서, 우리 딸의 몸에서는 부모들이 준 심장이 아니라 나로서 얻은 새 심장이 새차에 놓이고있다고 하던 용해공의 안해, 사랑하는 자식에게 새 생명을 준 고마운 조국을 지켜 생명도 기꺼이 바쳐졌던 최전연초소의 군관...

그들은 바로 오늘날 세계보건계에서 우수한 기술로 공인되어있는 《우측흉벽절개도달법에 의한 심장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두번다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다.

우리 의료집단이 새롭게 확립한 이 수술방법은 미용학적측면에서 수술자리로 인한 환자들의 심리적으로까지도 감소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술방법이다. 치료비라는 별다른 부담도 없고 완쾌된 몸으로 병원을 나서서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통

몇만 또는 몇십만US\$가 드는 막대한 심장수술비를 국가가 맡아 부담해주고있는것을 우리 인민들이 다 알고있을가 하고말이다.

그런 때마다 나의 뇌리속에 의욕실없는 나날에 겪었던 일들이 생생히 떠오르곤 한다.

연재인 내가 실습하던 병원으로 60살 나는 한 여성이 실려들어왔다. 극급치료로 심장은 뛰게 하였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어서 환자의 생명을 며칠밖에 유지할수 없었다. 환자를 살리려면 값비싼 인공심장박동 조절기를 몸에 이식해야 하였다.

환자의 아들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꼭 마련하겠으니 먼저 어머니부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더 귀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주일만에 그 녀성은 끝내 운명하고야말았다.

지금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그 아들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환자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 온 병원, 온 마을이 혈액의 정을 쏟는 사회주의 내

무상치료의 혜택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런 비참한 현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사회주의무상치료제라는 말을 다시금 뜨겁게 가슴에 새겨보곤 하였다.

은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꿈같은 현실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60형춘, 90환갑이라는 말도 태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서사시들을 낳았던가.

《이 나라의 모든 병원, 모든 의사들의 위생복에서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보았다.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서 인간을 제일로 여기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보

았다.》

무상치료라는 말을 외울 때마다 나는 세상에 대고 이렇게 소리높이 외치고싶다. 치료비라는 말조차도 없고 마음껏 치료를 받고 병이 날세라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에서 살고있는 우리 인민들처럼 복받은 인민이 세상에 없도록

했다.》

육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부과장 김철 진



나는 부녀의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부부조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교원들의 의식구조와 이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수 있었다.

조, 중,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이 말하는 조국은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나라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자기 사회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나라를 의미하는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평양시에 있는 정상유치원과 평양제1중학교의 교육시설들을 돌아보고 이와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는 소학생들과 중학생들뿐 아니라 원장, 교장, 부교장 등 교원들을 만나 이들의 교육현황을 알아보았다.

평양시 각 지역에는 동마다 유치원이 설립되어있었다. 우리가 찾아가던 정상유치원은 모범유치원들가운데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곳을 참관하여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들을 돌아보고 유치원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할수 있었다.

이 유치원은 1954년 개원되어

오다가 1979년에 음악적재능과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유치원으로 되었다. 4층건물 130개 방, 5-6살짜리 어린이들이 이 유치원에 재학중이다. 이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유치원생들은 모두 당당했다. 그 어느 어린이도 주눅이 든 모습을 볼수 없었다. 선생님이 그 무엇을 질문해도 큰소리로 대답한다. 이들을 위한 능능교육도 철저하다. 집단적으로 지도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개별지도도 받는 경우도 있다. 피아노를 비롯하여 각종 악기를 배우는 어린이들도 있고 노래하는 어린이들, 무용을 배우는 어린이들 등 다양하다. 유치원생들의 재능을 자랑하는 조그마한 강당도 마련되어있다. 의자들은 어린이들이 앉기에 적당한 높이, 예가 무릎 하나같이 굽고 귀여우며이다.

이들 어린이들은 언제나 나라가 마련해준 무료교육을 통하여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예능도 배우고있기때문에

그 어느곳에 있는 유치원에서 공부해도 수업과 함께 능능습을 받는다. 그래서 부녀어린이들은 머리도 좋지만 능능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그 누구나 할것없이 나라의 령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키운다. 유치원입구 건물앞

쪽에는 《김정은원수님 교감습니다》라고 써여있다.

평양제1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과 부교장의 안내에 의해 시설들을 돌아보고 교실에 학생들의 수업분위기와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들 중학교 학생들의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하나가 나라를 위해 기여해왔다. 그들의 마음 또한 열려있었다. 《김정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이 학교에는 소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총 13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하고있다. 10층건물에 수업교실들과 전시관들, 실험실 등이 배곡하게 설치되어 있다.

조선어, 혁명력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 선택과목 및 컴퓨터 등 다양한 과목들이 이들이 공부하는 분야이다. 중학교수업에 대해서는 이미 줄기세포에 대해 공부한다. 영어 공부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참고하고 있었고 선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100% 영어로 말하고 학습하고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1985년부터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는데 복도 한곳에 있는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 전국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재학생들의 이름과 소속이 소개되어있었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눈동자에서도 학업에 대한 집념이 강하게 빛나는것들을 볼수 있었지만 학교분위기가 온통 애국가들을 귀워내는 애국청년양성전당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들을 담당하는 교장, 부교장, 유치원 원장 및 교원들의 말과 자세에서도 그들이 하나같이 애국가들이라는것을 관찰할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

에서 기존 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로 확장하기로 결정한것을 기념하여 최고령도자께서 교육을 우선정책으로 내세웠다것을 응변해주고있다고 본다.

내가 방문한 정상유치원에도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령도자가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는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부녀의 초급, 중급교육기관들과 학생들을 만나보고 많은것을 생각했다.

남이 부과 힘을 합쳐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해왔다면 나라 과학기술을 인정난 돈을 들어 빌려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하무속히 남과 북이 손을 잡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명기된 그대로 실천하고 서로 돕기만 한다면 남, 북, 해외는 겨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훌륭한 민족으로 존경받는 대상이 될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즐거운 지난 설명절날에도, 3.8국제부녀절날에도 교육자, 과학자들이 사는 리명거리는 아

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리명거리의 새 집에 보급자리를 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스승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것이다. 찾아온 제자들중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제자들도 있었다.

스승은 제자들의 튼튼한 성장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제자들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준 스승의 남모르는 수고를 언제나 잊지 않고 명절날이나 생일날에 찾아가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화폭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펼쳐지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진 섬과 심심산골 분교의 교원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소행로,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청년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강신명의 《치녀어머니》와 같은 훌륭한 미덕은 얼마나 많은 것이다.

문득 얼마전 신문에 본 자본주의사회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사가 떠올랐다.

몇푼의 돈을 위해 자식이 부를 깔로 찢러죽이는것도 서슴치 않고 신성한 교정에서 학생이 선생을 구라하고도 《인간도덕》을 제쳐대는 자본주의사, 백수에 후인칭년을 총으로 쏘아죽이고도 법적책임을 고사하고 도덕적책임도 지지 않아 세인을 경악케 한 불법미투의 사회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세界的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이 정직적분구자가 되어부패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때에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는 고상하고 훌륭한 미덕과 미풍들이 수없이 발휘되고있다.

도덕은 그 나라, 그 사회의 정신상태와 문명정도, 앞날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이 땅 그 어디나 공기처럼 흐르는 고상한 도덕기풍과 넘쳐나는 사회주의미덕의 향기! 이것은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아름다운 화폭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김 금 화

본사기자

《인종통신》 대표 로길남

본사기자 김춘경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금화

새로운 관현악작품창작의 열풍을 일으킨다



국립교향악단에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새로운 관현악작품창작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에만도 관현악작곡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관현악 《우리는 만리마기수》를 비롯하여 수십권의 관현악작품들을 훌륭히 창작

공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명작들을 내놓을 열의를 안고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창작자들은 주제관현악의 장중한 울림으로 공화국의 70년력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새로운 교향시작품창작에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여러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인 관현악민요조곡창작도

문화예술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이런 높은 창작열의 속에는 새로운 관현악작품들은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주제예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여줄 것이다.

고있다.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이런 높은 창작열의 속에는 새로운 관현악작품들은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주제예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여줄 것이다.

늘어나는 《식솔》, 커가는 인민의 기쁨

— 중앙동물원에서 —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서 훌륭히 꾸려진 중앙동물원에 《식솔》들이 늘어나 사 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번에 낳은 새끼는 수컷 1마리, 암컷 2마리로서 현재 영양상태는 매우 좋을 뿐 아니라 찾아오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앞에서 재물을 부리며 기쁨을 안겨 주고있다.

이와 함께 파울염소, 검은머리양을 비롯한 동물들도 여러마리나 늘어났다.

조선옷차림풍습은 우리 민족이 고대시기부터 창조하고 발전시켜온것으로서 남녀, 어린이, 어른 등의 전통적인 제작기술과 방법, 차림관습을 포괄하는 조선사람들의 옷차림풍습의 총체이다.

오른쪽으로 여머입게 되어있으며 걸을인 두루마기는 형태는 유사하나 다리까지 가 리울수 있게 길다.

이런이웃은 형태상 어른과 같고 옷에 색동천을 대거나 수를 더 놓고 장식주머니 장도칼, 노래개를 더 채워주는것과 같은 장식상차이 만 있다.

국립박물관의 유물 조선옷차림풍습

남자옷은 가슴선아래까지 오는 짧은 저고리인데 깃에 동정을 달고 고름을 리용하여 왼쪽으로 여머입게 되어있으며 걸을인 두루마기는 여 머는 방향만 다를뿐 남자의것과 형태상 같다.

남자아래옷은 가랭이가 없 이 아래도리를 두르게 된 치마에 조끼가 달려 어깨에 고정시키게 된 옷으로서 폭치 마, 주름치마, 꼬리치마 등 형태가 다양하다.

민속성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조선옷차림풍습이 적극 장려되고있으며 조선옷제작기술도 더욱 발전하고있다.

민족경기 활쏘기

활쏘기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민족경기의 하나이다. 활쏘기경기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그 전통이 매우 오래다.

야 침착하게 화살을 쏘았다. 화살이 파녁에 맞으면 신호수가 붉은 기발을 들어서 신호하였다.

선수는 3순을 쏘아서 8대를, 5순을 쏘아서 13~14대를 파녁에 맞으면 기술이 우수한 《상수》로 인정되었다.

전체 경기를 통하여 가장 많이 파녁에 맞힌 사람이 그해의 1등에 뽑혔고 또 각 편의 성적을 종합하여 맞힌 수가 많은 편이 승리하였다.

오늘 활쏘기는 민족경기의 하나로 새 시대에 상용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수양, 단련과 관철할 습 답

《초년고생은 랑식 지고 다니며》

초년시기에 간난신고하면서 부지런히 힘써 일하며 배우고 심신을 단련하는것은 그 사람의 장래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보석도 닭아야 빛이 난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닭아야만 그 빛이 나타나듯이 사람은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야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개똥참외도 가꿀맛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교양만 잘 받으면 훌륭한 인물로 될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남의 지식 흉보지 말고 내 지식 거르려라》

남을 흉보기 전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자기를 돌이켜보고 고치려는것을 이르는 말.

《떡방아소리 듣고 김치국 찾는다》

일이 채 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다 된듯이 성급히 서둘러야 비웃어 이르는 말.

《정승집 개도 삼면이면 특강한다》

이것저것 많이 얻어들어 알게 되면 먼 지식을 뽐내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손목시계의 특수한 리용

수면 5가 된다. 시계판에서 5자를 찾아 태양을 마주하여 놓으면 12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북쪽이다.

양념은 어떤 순서로 쳐야 하는가

음식의 맛을 제대로 살리려면 양념치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사탕가루나 술을 넣고 다음으로 소금, 식초, 간장이나 맛내기를 넣는 순서로 넣어 간한다.

유모아

실례 예 또 실례

홍성거리는 야회에서 한 녀인이 정서깊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사화

론 개 (5)

승월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걸어들러 팔다리에 온통 털이 부시시하게 난 왜놈들의 흉측한 물결이 눈에 밟혔었다.

론 개 (5)

이것저것 많이 얻어들어 알게 되면 먼 지식을 뽐내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유모아

실례 예 또 실례

《나의 안해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정말 곱구만요. 노래가 나쁘것 같습니 다. 누가 지은 노래인지?》 《노래는 내가 지었습니다.》

론 개 (5)

이것저것 많이 얻어들어 알게 되면 먼 지식을 뽐내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유모아

실례 예 또 실례

《나의 안해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정말 곱구만요. 노래가 나쁘것 같습니 다. 누가 지은 노래인지?》 《노래는 내가 지었습니다.》

론 개 (5)

이것저것 많이 얻어들어 알게 되면 먼 지식을 뽐내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유모아

실례 예 또 실례

《나의 안해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정말 곱구만요. 노래가 나쁘것 같습니 다. 누가 지은 노래인지?》 《노래는 내가 지었습니다.》